

## VIII. 가야의 대외관계

1. 백제 · 야마토와의 접근과 중개외교
2. 대백제관계의 심화와 부용외교
3. 백제 · 신라의 각축과 분열외교

## VIII. 가야의 대외관계

근래 고대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한 역사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 남부의 일각을 이루고 있던 가야에 대한 역사 연구는 그 사료의 한계성 때문에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대 한반도 남부의 역사상 재구성은 가야사연구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가야사에 관한 중요 문헌사료인 《三國史記》나 《日本書紀》에 보이는 가야 관계기사는 대부분이 당시 한반도내의 각국이나 일본측이 각각 자국의 입장에서 가야와의 관계를 서술한 것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료의 성격 때문에 가야사연구는 먼저 대외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여기에 가야의 대외관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한 나라의 역사는 국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요인과 국제적인 계기를 통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가야사 연구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가야사상의 재구성을 위해서도 가야의 대외관계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야의 대외관계를 논하는 경우에도 아직 가야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만큼 먼저 어느 단계의 가야를 주체로 해야 하고 당시 가야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야가 삼한의 소국단계에서 가야로 발전하는 것이 4세기부터라고 하는 것이 학계에서 통설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야가 삼한 소국가단계에서 가야로 발전하는 4세기부터 가야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6세기 후반까지를 검토의 대상으로 하려 한다. 그리고 가야의 범위는 가야가 김해나 고령을 지칭하고, 「某가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존재하고 있던 당시

의 이름이 아니고 신라말이나 고려 초 이후의 인식이기는 하지만, 일찍부터 가야가 「모가야」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만큼<sup>1)</sup> 여기서는 가야를 「모가야」 내지는 한반도 남부의 신라나 백제에 속하지 않은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야의 대외관계를 논하는 경우에도 가야가 여러 개로 분립되어 있던 만큼 어느 가야를 주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먼저 가야 제국 중에서 관계되는 가야를 명확히 한 위에 그 가야를 중심으로 가야의 대외관계를 논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관계가 되는 가야를 일일이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외관계의 주체가 되는 가야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야를 포괄하는 의미로써의 가야를 주체로 해서 대외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가야의 대외관계를 그 특징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논하려고 한다. 1장에서는 4세기대의 중개외교,<sup>2)</sup> 2장에서는 5세기대의 부용외교, 그리고 3장에서는 6세기의 분열외교를 그 대상으로 한다.

## 1. 백제·야마토와의 접근과 중개외교

### 1) 4세기의 대신라관계

4세기 가야의 대외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가야의 상태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시 가야지역의 상태를 보여 주는 문헌사료가 별로 남아 있지 않는 것이 현재 학계의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시 가야 제국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학계에서는 4세기에 가야 제국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나의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소위 가야연맹체설이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

1) 金泰植, 《加耶諸國聯盟의 成立과 變遷》(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22~27쪽.

2) 제1장은 그 성격상 金鉉球, 〈4세기 가야와 백제·야마토와의 관계〉(《韓國古代史論叢》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4)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다.<sup>3)</sup> 그러나 당시 가야지역에 소국가들이 분립해 있었으며 그 중에서 금관 가야가 다른 소국가들에 비해서 약간 우위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가야 제국이 연맹체라고 불릴 만한 공동의 행동을 취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sup>4)</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4세기의 가야지역을 고대국가 전단계의 소국가들이 분립하고 있던 단계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지정학적인 면에서 당시 가야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나라는 신라였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가야와 신라와의 관계는 212년에 가야가 그 왕자를 신라에 볼모로 보내는 기사를 끝으로 481년까지 269년간 공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가야 자체에 관한 기사도 전혀 보이지 않아 그야말로 가야사의 공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4세기 가야의 대내외 정세는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김해 대성동이나 동래 복천동의 고분발굴 결과 소위 제2류 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陶質토기를 필두로 철제 갑주 · 마구 · 각종 철제 무기류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순장의 습속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층문화와 무기체제의 변화, 그리고 지배 · 피지배의 명확한 분리 등을 바탕으로 학계에서는 제2류의 목곽묘 출현을 가지고 국가발전의 한 획기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sup>5)</sup> 특히 무기체제의 변화와 각종 철제 무기류의 다량 출현은 이 때부터 대규모 정복전쟁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3세기 후반부터 김해와 동래지역을 중심으로 소국가간의 통합이 가속화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신라도 경상북도지역의 여러 소국을 병합하면서 영토확장을 위하여 주변의 가야지역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sup>6)</sup> 따라서 남과 동에

3) 金泰植, 〈加耶史研究의 現況〉(《韓國史 市民講座》11, 一潮閣, 1992).

4) 李永植, 〈加羅聯盟說의再檢討〉(《加羅諸國と任那日本府》, 東京; 吉川弘文館, 1993).

5) 申敬澈, 〈金官加羅의 成立과 對外關係〉(《伽倻와 東아시아》, 伽倻史國際學術會議, 金海, 1992)는 제2류의 목곽묘의 출현에서 변한(삼한)과 가라(삼국)의 획기를 구하고 있다. 일반 통설도 삼한 소국단계에서 가야로 변하는 시기를 4세기로 보고 있다.

6) 李鍾旭, 〈廣開土王陵碑 및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兵’의 정제〉(《韓國史 市民講座》11, 一潮閣, 1992)는 4세기에 이미 신라가 경상북도 여러 소국을 병합하

서 국가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가야 제국들은 의지할 수 있는 세력을 주변에서 찾지 않으면 안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경우 지리적 여건이나 당시의 세력관계로 보아 금관가야나 신라의 세력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가야 제국이 주변에서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백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 2) 대백제관계의 시작

잔존하는 문헌 사료상 4세기 가야가 최초로 관계를 맺은 나라는 백제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가야가 364년에 백제와 최초로 관계를 맺기 전까지 백제는 주로 신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되풀이하고 있었다.<sup>7)</sup> 그러나 4세기 중반 고구려가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던 낙랑(313)과 대방(314)을 멸망시킨 뒤 백제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하자<sup>8)</sup> 백제도 그 공격의 방향을 신라로부터 고구려로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9)</sup> 371년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사건을 계기로 양국간에는 4세기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sup>10)</sup> 따라서 당시에는 대외관계에서 백제의 지배층을 규제하고 있던 최대의 과제는 고구려와의 전쟁문제였다고 생각된다.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배후를 이루고 있던 가야나 신라, 그리고 바다 건너의 왜나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경우 백제가 최우선적으로 타개해야 할 과제는 가야와의 관계였다고 생각된다. 가야는 직접 배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나 야마토

---

고 영토확장을 위하여 가야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7) 《三國史記》에 의하면 167년부터 283년까지 116년간 양국 사이에는 16차례나 전쟁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백제와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기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8)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근초고왕 24년·26년·30년조에는 고구려의 침략기사가 보인다.

9) 《三國史記》에는 이 때부터 신라와의 전쟁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10) 《三國史記》에 의하면 371년부터 400년까지 29년동안 양국간에는 전후 14차례 걸친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왜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신라나 야마토왜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가야는 여러 소국가들로 분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백제는 먼저 가야 제국 중에서도 수도 한성에서 통하기 쉽고 신라나 야마토왜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만 했다.

그런데 《일본서기》<sup>11)</sup> 神功紀 46년(366)조에 의하면 그 해에 卓淳을 방문한 야마토왜의 斯摩宿禰(시마스쿠네)에게 卓淳王 末錦旱岐가 갑자년(364)에 백제의 久氏·彌州流·莫古 등 3인이 일본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왔기에 바다를 건너야만 일본에 갈 수 있다고 했더니 그들은 야마토왜의 사자가 오면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갔다고 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마토왜의 사마속례가 종자 爾波移(니하야)와 탁순인 過古 두 사람을 백제에 보냈더니 백제의 近肖古王이 심히 기뻐하면서 오색채견 각 한 필, 뽕화살·철정 40개 등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는 신공 46년에 야마토왜의 사인 사마속례가 탁순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sup>12)</sup> 그런데 이 때 내방한 사마속례에게 탁순왕 말금한기가 말한 바에 의하면 갑자년 즉 364년 7월에 백제의 사인 구저·미주류·막고 등 3인이 탁순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의 대구에 자리잡고 있어서 백제의 수도 한성에서 가깝고 신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낙동강을 이용해서 야마토왜와도 쉽게 통할 수 있는 탁순<sup>13)</sup>에 백제가 최초로 사자를 파견한 것은 364년이 되는 셈이다.

11) 본고에서 사용하는 《日本書紀》는 1967년판 岩波書店本(日本古典文學大系)이다.

12)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東京; 吉川弘文館, 1982), 96쪽에 의해서 신공기의 한국관계 기사는 《日本書紀》연대보다 120년을 더해야 실제 연대와 일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공 46년은 《日本書紀》의 연대로는 246년이지만 실제 연대로는 366년이 된다.

13) 鮎貝房之進, 〈日本書紀朝鮮地名攷〉(《雜攷》7 上, 143~151쪽·7 下, 72~102쪽)는 음의 유사성을 들어 탁순을 「達句火」(대구)로 비정한 데 대해서 김태식, 앞의 책, 188~198쪽은 고고학적 유물의 분포와 《日本書紀》에 보이는 卓淳 중심의 세력관계를 근거로 탁순을 「昌原」에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보이는 지명의 고증은 먼저 《일본서기》에 보이는 중요기사에 대한 사료비판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탁순 중심의 세력관계 고찰은 그 이용 사료에 문제점이 있고(金鉉球, 〈任那日本府〉 연구의 현황과

그런데 《일본서기》 신공기 49년(369)조<sup>14)</sup>에 의하면 그 해 백제장군 木羅斤資가 탁순을 근거로 해서 比自炁・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 등 소위 加羅 7국을 평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369년 백제는 가야 7국 평정에 즈음하여 탁순으로부터 그 전진기지를 제공받은 셈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제가 탁순으로부터 가야 7국 평정기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탁순으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백제가 가야 7국 평정 전에 탁순과 접촉하였음을 보여 주는 유일한 기록이 갑자년(364)에 백제의 사자인 구저 등이 내방했다는 탁순왕 말금한기의 말이다. 따라서 갑자년에 백제의 사인 구저 등이 탁순에 왔었다는 탁순왕 말금한기의 말은 사실로서 인정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단 《일본서기》 신공기 46년조에는 백제사 구저 등의 갑자년 탁순 내방의 목적이 탁순 방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는 길을 찾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왜와 중국과는 그 때까지 이미 400년 이상 교통이 있었는 데<sup>15)</sup>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백제가 일본에 가는데 배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백제사 구저 등의 탁순 내방 목적이 일본에 가는 길을 찾기 위한 데 있다는 내용은 《일본서기》 편자의 작문으로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갑자년 구저 등의 탁순 내방이 369년 탁순을 근거지로 한 가야 7국 평정 이전의 백제와 탁순과의 유일한 접촉이었던 것으로 보아 갑자년 구저 등의 내방이 가야 7국 평정시 백제가 탁순을 그 기지로 사용하게 된 바탕이 되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들의 내방은 탁순이 가야 7국 평정기지를 제공하게 되는 369년보다 5년이나 앞선 것으로 보아 그 직접적인 목적이 369년의 가야 7국 평정기지를 제공받는 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점>, 《韓國史 市民講座》 11, 一潮閣, 1992), 그 세력관계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으므로(白承玉, <4~6세기 比斯伐加耶의 性格과 그 推移>, 釜山大 碩士學位論文, 1991, 35~36쪽), 여기서는 아직 음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대구설을 대체할 설이 없다는 생각에서 대구설을 취하기로 한다.

14) 神功紀 49년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金鉉球, 《任那日本府研究》(一潮閣, 1993), 30~42쪽 참조.

15) 《後漢書》 권 85, 列傳 75, 東夷 倭 및 《三國志》 권 30, 魏書 30, 倭傳 등에 의하면 이미 기원전부터 倭가 중국과 교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갑자년 백제사 구저 등의 탁순 내방 2년 후에 해당되는 近肖古王 21년(366)에 백제가 탁순을 매개로 해서 야마토왜와 첫 교섭을 갖게 되는 것이다.<sup>16)</sup> 그리고 야마토왜와 통교한 같은 해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서 신라와도 교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sup>17)</sup> 이 때에도 지리적 관계로 보아 백제사의 신라 방문은 탁순을 경유하는 통로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결국 갑자년 백제사 구저 등의 탁순 내방 2년 후에 백제는 탁순을 경유해서 신라 · 야마토왜와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따라서 갑자년 백제사 구저 등의 탁순 내방은 탁순으로부터 가야 7국 평정기지를 제공받는 등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신라나 야마토왜와의 통로를 확보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백제가 갑자년에 탁순과 관계를 맺고 그 탁순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근초고왕 21년에는 야마토왜 · 신라와도 관계를 맺은 것은 근초고왕 24년과 26년의 대고구려전을 앞두고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것은 백제가 근초고왕 27년에는 중국에도 눈을 돌려 동진에까지 사신을 파견함으로써<sup>18)</sup> 고구려와의 전쟁을 전후해서 당시 고구려를 제외한 모든 주변국가들과 관계를 맺은 사실로도 입증된다.

한편 갑자년(364) 백제사 구저 등의 내방을 탁순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sup>19)</sup> 그 2년 뒤에는 백제가 탁순을 경유해서 신라 · 야마토왜와의 교류까지도 허용한 것은 백제의 목적이 탁순의 국제적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탁순으로서는 남쪽과 동쪽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금관가야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백제와 관계를 맺는 것은 이전부터 노리던 바였다. 탁순으로서는 백제가 탁순을 경유해서 신라와 교빙하는 것이 동쪽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신라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되며 백제가 탁순을 매개로 야마토왜와 관계를 갖게 하는 것

16) 金鉉球, 앞의 글, 124쪽 참조.

17)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근초고왕 21년.

18)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근초고왕 27년.

19) 탁순이 구저 등의 내방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은 그 뒤 백제가 탁순을 매개로 신라 · 야마토왜와 관계를 맺고 가야지역에 진출하는데 탁순이 적극 협력한 사실로도 추측된다.



도 남쪽의 금관가야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탁순으로서는 갑자년 백제의 접근과 탁순을 통한 2년 후의 신라·야마토와의 교류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 3) 대야마토왜관계의 시작

가야지역 특히 금관가야의 전신인 狗那韓國은 이미 기원전부터 왜의 대중국교섭의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한 것이 《三國志》 위서 왜인전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이는 가야가 일찍부터 왜와 활발한 관계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북구주의 조몽(紵蒙) 전기의 櫛木文土器, 조몽 중기 후반의 稻作文化, 야요이(彌生)시대의 도작인의 이주, 청동기·철기 등의 전파가 한반도, 특히 가야지역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sup>20)</sup> 이와 같은 사실은 《삼국지》한조의 “나라에 철이 나서 韓·濊·倭가 모두 이를 얻어간다”는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김해 池內洞 옹관묘에 부장된 袋狀口緣土器, 김해 부원동 패총에서 나온 二段口緣形土器,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簡形銅器·巴形銅器·長方鐘車形石製器 등도 김해지역과 왜와의 교류를 잘 보여 주고 있다.<sup>21)</sup>

그런데 양 지역에 소국가가 분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교류는 4세기에 들어서면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일본열도에서는 아직 지방세력이 잔존하기는 하지만 야마토왜가 우위를 확립한 후 서일본까지도 그 세력하에 편입시킴으로써 일본열도내에 있어서 가야의 주교섭대상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sup>22)</sup> 그리고 가야지역에서도 구나한국이 금관가야로, 다시 말하면 삼한 소국단계에서 가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간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금관가야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야지역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20) 大塚初重, 〈考古學から見た伽耶と倭〉(《伽倻와 東아시아》, 주 1) 참조.

21) 金泰植, 앞의 책, 36쪽 참조.

22) 申敬澈, 〈最近 加耶地域の 考古學的 成果〉(《加耶史研究의 成果와 展望》,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1992)에서 4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야의 주 대상이 북구주에서 야마토 및 濊內로 전환하였다는 견해는 이런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위에 전대부터 왜의 대중국교섭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구나한국을 계승한 만큼 금관가야가 야마토왜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주 교섭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23)</sup>

4세기에 들어서면서 양 지역에서 통합이 가속되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금까지의 산발적인 교류는 점차 정치적인 관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관가야를 위시한 가야 제국이 언제부터 야마토왜와 정치적인 목적의 교섭을 갖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사적인 내용이 <광개토왕릉비>에 보인다. 이 비문에 의하면 400년과 404년에 왜가 한반도에 침입하여 고구려와 싸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아 야마토왜가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서는 가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400년 싸움에서 고구려군이 야마토왜를 추격하여 고령의 임나가야에<sup>24)</sup> 이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야마토왜가 대고구려전에서 고령가야를 그 전진기지로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고령가야가 야마토왜에게 400년과 404년에 대고구려전의 전진기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령가야가 400년과 404년 싸움에서 야마토왜에게 전진기지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야마토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령가야의 남쪽에 있던 금관가야는 고령가야보다도 이전에 이미 야마토왜와 공식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셈이 된다. 따라서 가

23) 申敬澈은 위의 글에서 김해 대성동고분 발굴 유물중 倭와 관련된 것으로서 簡形銅器・巴形銅器・碧玉製紡錘車形石製品 등을 제시하여 4세기의 김해지역과 왜와의 교류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24)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임나가야가 고령가야인 것은, 당시 백제가 가야지역을 그 세력하에 두고 있으면서 왜를 동원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왜가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서 이용한 기지인 임나가야는 백제가 제공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 임나가야는 대고구려전의 전진기지로써 당연히 가야의 북반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데서 추측한 것이다. 또 당시 백제가 고령가야에 상비군을 두고 있었고, 백제가 왜를 대고구려전에 끌어들여 그 기지를 제공할 만큼 고구려와 가까운 지역으로서 왜와 백제군의 합동작전이 가능했던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고령가야라는 사실에서도 임나가야는 고령가야라고 생각된다(金鉉球, 앞의 책, 101쪽). 서보경, <「任那」의 지명비정에 대한 一考察>(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년)에도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임나가야가 고령가야임이 잘 증명되어 있다.

야가 야마토왜와 관계를 맺은 상한선이 언제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앞에서 제시한 신공기 46년조에 의하면 야마토왜의 사자가 탁순을 매개로 해서 366년에 백제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25)</sup> 그런데 366년에 야마토왜의 사자가 백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보아 탁순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시 야마토왜의 사자가 백제에 간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그가 백제에 가기 전에 탁순에 들렀다는 내용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탁순과 야마토왜와의 첫 접촉은 366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신공기 46년조에는 야마토왜의 사자인 사마속례가 366년 왜 탁순에 왔는지 그 이유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탁순에 온 야마토왜의 사자가 결과적으로 탁순의 중개로 백제에 갔다. 이것은 야마토왜의 사자가 탁순에 온 목적 중의 하나가 탁순을 경유해서 백제로 가는 데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마토왜의 사자가 백제에 간 목적은 백제의 근초고왕이 채위 21년(366) 백제를 방문한 사마속례의 종자인 이파이에게 준 품목 중에 철정 40개가 들어 있던 것으로 보아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증대하고 있던 철 등의 선진문물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sup>26)</sup>

그러나 야마토왜의 사자인 사마속례가 탁순에 온 목적이 백제에 가기 위한 통로의 확보에만 있었다면 백제와는 보다 편리한 해상통로가 있었던 만큼 해상통로를 이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야마토왜의 사자 사마속례의 탁순 내방은 백제에 가기 위한 통로의 확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야마토왜의 사자 사마속례의 탁순 내방의 다

25) 金鉉球, 앞의 책, 24쪽 참조.

26) 철정은 당시 고대국가로 성장하고 있던 야마토왜가 정복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했던 선진문물이었다(森浩一, 〈古墳鐵鎚について〉, 《古代學研究》, 1960). 그런데 백제에서 당시에 양질의 철이 생산되고 있었음은 신공기 52년조의 “신의 나라 서쪽에 강이 있습니다. 水原은 谷那의 鐵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이 산의 철을 취해서 길이 성조에 바치겠습니다”라고 백제가 七支刀를 일본에 보내면서 한 말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5세기 단계까지도 스스로 철을 생산할 수 없었던 데도 불구하고(大塚初重, 앞의 글)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친 일본의 應神陵部塚アリ古墳, 奈良縣 高塚古墳 등에 부장되어 있는 대량의 鐵鎚(大塚初重, 위의 글 및 三品彰英, 위의 책, 103쪽)은 한반도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른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야마토왜의 동아시아 속에서의 위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야성립 이전부터 왜가 중국과 한반도 남부에서 선진문물을 구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삼국지》 위서 왜전 이래의 기록들이나 일본에서 ‘景初 3년(239)’의 연호 등이 새겨져 있는 三角緣神獸鏡이 300개 이상 출토된 사실로서<sup>27)</sup> 왜가 일찍부터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구입해 왔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북구주에 야요이 시대의 벼농사, 청동기와 철기 등의 존재는 야마토왜가 한반도 남부에서도 선진문물을 구해 왔음을 잘 보여 준다.<sup>28)</sup>

그런데 야마토왜가 본격적으로 고대국가로 발전하던 시기에는 중요한 선진문물 도입처의 하나였던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다. 야마토왜는 265년의 건사를 끝으로 413년에 국교를 재개할 때까지 150여 년간 중국과의 국교가 중단되어 있었다.<sup>29)</sup> 이는 야마토왜와 중국과의 관계를 중개하고 있었던 낙랑·대방군의 몰락과 그들을 멸망시킨 고구려의 방해가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0)</sup> 그런데 야마토왜는 고대국가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선진문물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야마토왜는 구나한국이나 그 후신인 금관가야에서만 도입으로는 증대되는 선진문물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야마토왜로서는 선진문물의 수입처를 금관가야 이외의 한반도 내륙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야마토왜가 4세기 이후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선진문물의 수입처를 한반도 내륙지역으로 확대하였다는 사실은 大阪府 陶邑의 TK3號窯 등의 초기 須惠器의 조형이 합천·고령의 도질토기이고,<sup>31)</sup> 북구주의 朝倉窯址

27) 近藤喬一, 〈三角緣神獸鏡の研究史〉(《三角緣神獸鏡》, 東京大出版會, 1988).

28) 大塚初重, 앞의 글.

29) 栗原朋信, 〈上代の對外關係〉(《對外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1978).

30) 《宋書》권 97, 列傳 57, 倭國전에는 야마토왜가 중국에 통하는데 고구려의 방해를 받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31) 大塚初重, 앞의 글.

土器의 원류지가 백제와 가까운 가야지역이며,<sup>32)</sup> 백제지역에서 직접 또는 백제에서 가야지역을 거쳐서 들어간 마구가 일본열도에 등장하는 마구의 원류가 되었던 사실<sup>33)</sup> 등에 의해서도 잘 입증된다. 그리고 4~5세기 고분의 부장품에 갑자기 철정 및 철기류가 급증하는 현상도<sup>34)</sup> 금관가야에서만 도입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야마토왜에서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탁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백제가 근초고왕 21년(366) 신라 및 야마토왜와 관계를 맺을 때 탁순을 경유한 점이나 같은 왕 24년 가야 7국 등 한반도 남부지역을 정벌할 때도 탁순을 그 집결지로 이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탁순은 한반도 남부 제지역에 통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야마토왜로서는 당시 선진문물을 도입해야 할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 내륙의 제지역과 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탁순과 관계를 가져야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366년 야마토왜의 사자 사마숙례가 탁순을 방문한 것은 중국으로 가는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급증하는 선진문물을 구하기 위한 내륙통로의 확보에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sup>35)</sup>

한편 야마토왜의 사자가 366년에 탁순에 왔다는 것은 야마토왜가 탁순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던 금관가야와는 그 이전에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야마토왜의 금관가야 접근이 선진문물의 수용에 있었음은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이에 반해서 금관가야가 366년 야마토왜의 사자 사마숙례의 탁순방문에 협력한 의도는 분명치 않다.

그런데 한일의 어떠한 사료에도 당시 신라와 야마토왜는 일관되게 적대관

32) 崔柄鉉, 〈考古學的으로 본 加羅와 日本과의 관계〉(《韓國史 市民講座》11, 1992).

33) 崔秉鉉, 위의 글.

34) 大塚初重, 앞의 글.

三品彰英, 앞의 책, 103쪽.

35) 田中俊明, 《大加羅聯盟の興亡と任那》(東京; 吉川弘文館, 1992), 219쪽의 ‘일본에 있는 가야계 문물의 압도적 양에 비해서 가야에는 이것밖에는 없는가 하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는 일본계 유물이 없다’는 지적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계로 서술되어 있다.<sup>36)</sup> 그리고 금관가야에게 최대의 위협적인 존재는 신라였을 것이다. 따라서 금관가야가 366년 야마토왜의 사인 사마속례의 탁순방문에 협력한 것은 야마토왜가 백제와 관계를 갖는 것이 신라를 견제하는 데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그것은 야마토왜의 신라공격이 신라의 세력확대에 위기감을 느낀 금관가야의 요청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sup>37)</sup>

한편 남쪽으로부터 금관가야의 압력에 직면해 있던 탁순으로서는 야마토왜에게 선진문물을 얻기 위한 내륙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야마토왜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금관가야를 견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당시 탁순으로서는 금관가야 못지 않게 위협적인 존재가 그 동쪽에 있던 신라였는데, 야마토왜는 언제나 신라와는 적대관계였으므로 야마토왜를 백제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신라를 견제하는 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sup>38)</sup> 여기에 탁순이 야마토왜에게 내륙통로를 제공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366년 탁순이 야마토왜와 백제와의 관계에서 중개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백제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야마토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탁순이 금관가야를 대신해서 가야제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대백제관계의 진전

탁순이 야마토왜의 사자를 백제에 안내한 것은 백제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셈이다. 그런데 백제가 탁순이나 야마토왜와의 관계를 추구한 의도는 대고구려전에 있어서의 배후세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364년에 맺은

36) 《三國史記》나 《日本書紀》 등 고대한일의 양국 사서에 신라와 왜와의 관계가 대부분 적대관계로 기록되어 있다.

37) 田中俊明, 앞의 책, 215쪽.

38) 田中俊明(위의 책, 215쪽)은 야마토왜가 신라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것은 선진문물을 도입하던 금관가야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탁순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신라·야마토왜와도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단 배후를 안정시켰다고는 하지만 고구려와의 대결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백제는 배후의 안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경우에는 직접 배후를 이루고 있는 가야 제국과의 관계가 그 핵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탁순 이외의 가야 제국과의 관계는 이미 관계가 성립된 탁순이 그 발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백제가 탁순을 발판으로 가야 제국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이 《일본서기》 신공기 49년(369)조에 보인다. 그 중요한 내용은 369년에 백제가 한반도 남쪽의 옛 마한 지역의 정벌에 나서서 목라근자가 이끄는 일군은 탁순에 집결한 다음에 비자벌·남가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 등 7국을 평정하고 한반도 서남쪽의 古奚津(현 강진)으로 향하고, 근초고왕 부자는 한성에서 막바로 고해진으로 직행하여 합류했더니 그 사이에 있던 옛 마한 세력이 투항해 왔다는 것이다.<sup>39)</sup>

신공기 49년조의 백제가 근초고왕 때에 가야 7국과 상하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은 欽明紀 2년(541) 4월조 등에서 찾아지는 근초고왕 때에 백제가 가야 제국과 「부자관계」를 맺었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sup>40)</sup>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백제가 가야 7국을 평정했다는 369년부터 13년 후에 해당되는 신공 62년에 이번에는 신라의 침입을 받은 고령가야의 구원요청에 응해서 백제가 군을 파견하여 가야를 구원해 주는 사건이 발생한다.<sup>41)</sup>

이 때 가야 구원군이 백제에서부터 출병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382년 단계에서는 아직 백제군이 가야에 상주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백제가 가야 7국을 평정하였다는 369년 단계에서는 백제가 한반도 남부의 정토과정에서 가야 제국과 「부자관계」라는 형식적인 상하관계를 맺기는 하였지만, 이 관계는 상호선린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었는가 생

39) 이 기사에 대한 분석은 金鉉球, 앞의 책, 30~42쪽 참조.

40) 《日本書紀》권 19, 欽明紀 2년 4월·2년 7월·5년 11월조 등에는 백제와 가야 제국이 근초고왕 때에 부자관계를 맺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41) 金鉉球, 앞의 책, 50~54쪽.

각된다.<sup>42)</sup> 백제와 가야 제국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상하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백제의 가야 7국 평정작전의 최종목표가 가야 7국 평정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반도 서남부의 옛 마한 세력의 정토에 있었던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한편 탁순은 왜 백제에게 가야 7국 평정기지를 제공하고 백제와 상하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형식적인 상하관계라고는 하지만 탁순이 백제군으로 하여금 그 영토를 통과하게 하고 또 백제와 상하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남과 동으로부터 금관가야와 신라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었던 탁순으로서는 금관가야나 신라를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보호자를 얻은 셈이 된다. 그리고 백제와의 관계에서도 가야 제국을 대표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탁순이 백제에게 가야 7국 평정기지를 제공하고 상하관계를 맺은 것은 그 때까지 백제와의 단순관계를 바탕으로 한 금관가야나 신라에 대한 간접견제 대신에 직접견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가야 제국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366년이래 금관가야를 대신해서 야마토왜와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던 탁순이 백제와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가야 제국의 대외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백제나 야마토왜와의 관계에 있어서 탁순의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탁순의 주체적인 역량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국제정세에 따른 것으로 결국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탁순이 중심이 된 4세기 후반 가야의 대외관계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金鉉球〉

42) 비사벌가야만의 예이기는 하지만, 비사벌가야가 4세기 중엽 이후 백제에 부庸적 입장이면서도 자체 발전을 하고 있었음을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연구로서 백승욱, 앞의 글이 주목된다.



## 2. 대백제관계의 심화와 부용외교

### 1) 신라·고구려의 침입과 대백제관계의 심화

369년 가야 7국이 백제와 상하관계를 맺은 직후부터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는 전쟁이 본격화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369년부터 389년까지 20년간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는 전후 8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은 거의 고구려의 先攻에 의한 것으로<sup>1)</sup> 이는 고구려가 양국간에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던 대방·낙랑을 멸망시킨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런데 백제로서는 가야는 신라나 야마토왜와의 관계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대고구려전의 배후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고구려와의 대립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가야를 직접 후방기지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대국가로 발전하고 있던 신라의 압박을 받고 있던 가야로서도 신라의 압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백제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바로 이런 때에 가야와 백제의 관계가 심화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서기》 신공기 62년(382)조에 의하면 신라가 야마토왜에게 불봉하므로 야마토왜가 임오년(382)에 신라를 치려했으나 신라가 미녀를 바치자 신라를 치지 않고 오히려 가야를 쳤다는 것이다. 이에 백제로 피난한 가야왕이 사람을 보내서 야마토왜에게 구원을 청하므로 야마토왜가 백제의 장군인 목라근자로 하여금 가야의 사직을 부활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신공기 62년조에는 가야가 야마토왜의 침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주위에서 고령가야에 침입할 만한 세력은 신라와 야마토왜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야마토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한반도 남부지역을 건너뛰어 내륙의 고령가야를 침략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므로 이 때 가야를

1) 《三國史記》에 의하면 이 기간에 8차의 싸움이 있었고, 그 중에서 5번이 고구려의 선공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침략한 세력은 바로 이웃에 있던 신라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한편 신라의 침입에 대해서 고령가야의 왕이 몸은 백제로 피난해 있으면서 구원은 야마토왜에게 요청했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그런데 고령가야의 왕이 피해 있던 곳이 백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고령가야를 구원한 것이 백제의 장군인 목라근자이고 백제는 지리적으로도 고령가야와 이웃하고 있었으며 백제와 고령가야는 이미 상하관계에 있었던 만큼 당시 고령가야가 구원을 요청하고 이에 응해서 고령가야를 구원한 나라는 야마토왜가 아니라 백제였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야지역을 후방기지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던 백제가 고령가야의 구원요청에 목라근자를 보내서 구원해 준 것도 당연한 처사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382년에 가야구원군이 백제에서부터 출동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는 아직 백제군이 가야에 상주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의 침입을 받은 가야왕이 백제로 피난을 하고 백제의 구원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됨에 따라서 369년 이래의 백제와 가야와의 형식적인 상하관계는 이 때에 이르러 실질적인 상하관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400년과 404년 백제가 끌어들이 야마토왜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고령가야는 야마토왜에게 대고구려전의 전진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382년 이래 고령가야는 실질적으로 백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고령가야는 백제와 대립관계에 있던 고구려의 남하에 따른 제일의 피해자였다. 따라서 고령가야는 고구려와 싸우고 있던 백제와 그 지원세력인 야마토왜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결국 고령가야가 야마토왜에게 대고구려전에서 전진기지를 제공한 것은 백제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고령가야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것은 또한 백제로 하여금 고령가야의 예속을 심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369년 이래 백제와 상하관계를 맺고 있던 가야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친 신라의 침입과 고구려의 남하에 대항해서 더욱 백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가야와 백제와의 형식적인 상하

관계는 실질적인 상하관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고령가야는 백제의 직접 구원을 받고 야마토왜에게 전진기지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백제와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탁순을 제치고 백제와의 관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 2) 야마토왜에 대한 군사기지 제공

내륙의 탁순이 366년 야마토왜와 관계를 맺고 백제와의 관계를 중개함으로써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었던 야마토왜와의 관계가 탁순이 중심이 된 관계로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다. 그런데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에 의하면 369년 탁순을 근거로 한 백제의 가야 7국 평정군에 야마토왜의 沙沙奴跪(사사나코)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탁순과 야마토왜의 366년 이래의 단순관계가 이 때에 와서 군사관계로 전환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야마토왜가 탁순을 근거로 한 백제의 가야 7국 평정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보아 한반도 남부의 금관가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평정의 대상인 가야 7국 중의 하나인 금관가야가 야마토왜의 가야 7국 평정군 참여를 좌시할 터이 없다. 그리고 만약 평정대상인 가야 7국 중의 하나인 금관가야가 야마토왜의 통과를 용인했다면 백제의 가야 7국 평정에 협력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백제와 금관가야의 상하관계는 백제의 가야 7국 평정의 결과로써 성립된 만큼 그런 이야기는 성립될 수 없다.

《일본서기》신공기 62년조에 보이는 382년 야마토왜의 고령가야 침략을 사실로서 인정하여 당시 야마토왜가 남부가야 및 내륙의 고령가야까지도 그 세력하에 넣고 있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sup>2)</sup> 그러나 이는 369년의 가야 7국

2) 田中俊明은 이 내용이 442년의 사실로 '이전부터 우호관계에 있던 금관 내지는 안라국을 발관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대가야에 진출하여, 거기에 패권을 확립하려고 했으나 대가야의 구원요청을 받은 백제의 공격에 의해서 실패했다'고 하여 가야를 구원한 것이 백제인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을 야마토왜가 가야지역에 패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田中俊明, 《大加羅聯盟の興亡と任那》, 東京; 吉川弘文館, 1992, 97쪽). 그러나 이는 그 이전에 야마

평정이 야마토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기존의 임나경영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382년 야마토왜가 고령가야를 침략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366년 이래의 야마토왜에 대한 탁순의 단순한 중개자로서의 관계는 그 후에도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400년과 404년 야마토왜와 고구려의 싸움에서 고령가야가 야마토왜에게 대고구려전의 진진기지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5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야와 야마토왜와의 366년 이래의 단순관계가 군사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구려의 남하하는 가야 제국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야 제국은 야마토왜의 대고구려전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그런데 이 때에 이르러서 고령가야와 야마토왜와의 관계가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정치적 협력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령가야와 야마토왜와의 관계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가야와 백제와의 관계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가야와 야마토왜와의 관계는 가야와 백제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야마토왜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한 것이 고령가야라는 사실은 고령가야가 백제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야마토왜와의 관계에서도 탁순을 대신해서 가야 제국 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도 고령가야의 주체적 역량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국제정세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쳐 고령가야가 중심이 된 가야의 대외관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

토왜가 금관가야나 안라가야 등 한반도 남부지역을 이미 그 세력권하에 넣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야 7국 평정이 야마토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설과도(위의 책, 87쪽) 모순된다. 그리고 백제가 이미 가야 7국과 상하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기사에서도 야마토왜가 사사나코를 파견했기 때문에 야마토왜에 구원을 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원을 백제에 청했다면 사사나코로 표시된 사람을 파견한 나라도 백제가 되어야 하는 점이나 지리적인 관계 등으로 보아 가야를 친 나라를 야마토왜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3) 백제군의 주둔

언제부터인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일본서기》應神紀 25년(474)조에는 가야가 백제의 영향하에 들어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기사가 보인다. 그 중요한 내용은 목라근자가 신라를 쳤을 때 신라의 부인을 취해서 얻은 木滿致가 부 목라근자의 공로를 배경으로 가야의 국정을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다.<sup>3)</sup> 결국 이 기사는 목라근자가 369년 가야 7국 평정, 그리고 382년의 가야 구원을 바탕으로 그 후에도 계속 가야지역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 결과 아들인 목만치도 부 목라근자의 세력을 바탕으로 가야의 국정을 마음대로 전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382년의 가야 구원 후에도 목라근자와 그 아들 목만치가 가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백제가 그들의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가야지역에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382년 가야 구원 후의 어느 시기부터인가 백제세력이 직접적으로 가야지역에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야의 요청으로 백제군이 가야에 들어와서 상주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新撰姓氏錄》吉田連조에 있다. 그 내용은 가야가 三己汶을 놓고 신라와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삼기문을 야마토왜에게 바치므로 吉大尙의 8대조인 塩乘津이 야마토 조정의 명을 받아 삼기문에 진주하여 그 곳을 진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야의 요청으로 삼기문에 들어가서 군을 상주시킨 것은 야마토왜가 아니고 백제이며, 그 주체가 백제에서 야마토왜로 바뀐 것은 삼기문에 진주한 염승진의 8대손인 길대상이 백제가 멸망한 뒤(663) 일본에 망명하여 왜인을 칭함으로써 그 조상도 백제인에서 야마토왜인으로 되어버린 결과인 것이다.<sup>4)</sup> 다시 말하면 《신찬성씨록》의 기사는 가야가 신라와의 분쟁지역에 야마토왜의 세력을 끌어들인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제군을 끌어들인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백제군이 가야의 요청으로 삼기문에 들어가 상주하기 시작한 시기가 문제인

3) 이 기사에 대한 분석은 金鉉球, 《任那日本府研究》(一潮閣, 1993), 55~61쪽 참조.

4) 金鉉球, 위의 책, 118~120쪽 참조.

데 그 시기는 목라근자가 369년 가야 7국을 평정하고 382년에는 가야를 구원했으며, 그 결과 5세기에 들어가서는 그 아들인 목만치가 가야의 국정을 마음대로 전단한 것으로 보아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일본서기》顯宗紀 3년(487) 是歲조에는 백제군이 가야에 상주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기사가 보인다. 그 중요한 내용은 가야에 주둔하고 있던 야마토왜의 紀生磐宿禰(기노오히하노스쿠네)가 고구려와 교통하면서 삼한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야에 있던 백제의 適莫爾解를 죽이고 백제에 대항하므로 백제가 古爾解 등을 보내어 그를 격파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야마토정권의 기생반숙례가 가야를 근거로 현지에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일본서기》흥명기 5년(544) 2월조에도 뒷받침되는 내용이 보여<sup>5)</sup> 그 사실성이 입증되고 있는데 기생반숙례가 반란에 즈음해서 먼저 백제와 가야 사이에 대산성을 쌓아 백제의 동도를 차단하여 임나 주둔 백제군을 기근에 빠뜨린 것으로 보아 백제군이 대산성 동쪽의 가야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난을 진압한 것이 백제이고, 역사적으로 당시 가야에 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나라는 백제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난은 야마토왜의 가야 주둔군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백제의 가야 주둔군이 일으킨 반란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이 난을 일으킨 기생반숙례는 백제의 가야 주둔군 장군이 야마토왜의 장군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백제군이 가야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 주둔 책임자가 현지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시도했다는 것은 적어도 487년 단계에서는 이미 백제군이 가야에 장기적으로 상주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경우에 백제군이 가야에 들어와서 주둔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가야의 요청으로 백제군이 삼기문에 들어가서 상주하기 시작하는 4세기 말 내지는 5세기 초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백제군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친 군사적 협

5) 李鎔賢, 〈6世紀 前半頃 伽耶의 滅亡過程〉(高麗大 碩士學位論文, 1988).

력)과 목만치의 가야국정에 대한 전단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형식적이라고는 하지만 369년 백제와 상하관계까지 맺은 만큼, 내외의 압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가야 제국의 백제에 대한 의존은 심화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382년 신라의 침입을 받은 고령가야가 백제에 구원을 요청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와의 대립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마침내 군의 상주까지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5세기에 들어가면서 백제군이 상주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369년 이래의 형식적인 상하관계는 실질적인 상하관계로 전환되고 목만치의 국정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479년에는 가야가 중국에 조공하여 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작위를 받아 대내외적으로 그 존재를 과시하고 있었다.<sup>7)</sup> 그리고 481년에는 백제와 함께 신라의 구원요청에 응하는 기록이 보이므로 그 국력과 자주성을 짐작할 수 있다.<sup>8)</sup> 이와 같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고구려에 의한 475년 한성의 함락과 임나경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목씨의 중심 인물인 목만치가 한성의 함락에 즈음해서 야마토왜에 구원을 요청하러 갔다가 그대로 정착함<sup>9)</sup> 따라서 생긴 힘의 공백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487년의 가야주둔 백제군이 본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가야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479년의 중국조공은 백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가야의 사신이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택하던 백제의 영토나 해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sup>10)</sup> 그리고 487년

6) 382년 백제의 가야구원과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5세기 백제의 대고구려전에 대한 가야의 협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7) 《南齊書》권 58, 列傳 39, 東南夷 加羅國條에는 479년에 加羅王 荷知가 南齊에 사자를 보내어 輔國將軍本國王에 배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8)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소지왕 3년 3월조에는 가야와 백제가 고구려의 신라침입을 구원하는 기사가 보인다.

9) 임나경영에 관여하던 목만치가 군원을 요청하러 갔다가 그대로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은 金鉉球, 앞의 책, 54~61쪽 참조.

10) 당시 대가야 사신의 入中루트는 李文基, <大伽耶의 대외관계>(《伽耶史研究》, 慶尙北道, 1995)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의 가야주둔 백제군의 반란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도 가야에 백제군이 상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5세기 후반 가야가 취한 일련의 조치도 백제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가야가 취한 중국에 대한 조공이나 신라지원은 고구려와의 힘겨운 싸움으로 배후의 가야뿐만 아니라 신라나 중국과도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던 백제의 정책에 잘 합치하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가야의 자주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움직임도 독자적이라기 보다는 백제가 북방문제에서 파생된 남방의 힘의 공백을 가야와의 강화로 메우려 한 배려였다고 생각된다.<sup>11)</sup>

〈金鉉球〉

### 3. 백제 · 신라의 각축과 분열외교

#### 1) 신라의 진출

한국측 자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라의 가야진출은 일찍부터 시도되었다. 4세기 말에는 신라가 고령가야에 진출하려다가 백제의 저지로 실패한 사실이 있고, 5세기 초에 가야가 백제군의 진주를 요청한 것도 신라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5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인하여 백제의 가야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6세기 초에 伴跋 등이 세력 확대를 시도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백제가 도리어 가야지역에 대한 직접지배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의 반파 등에 대한 직접지배의 시도는 당연히 그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신라를 자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인하여 당시 백제의 가야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6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라의 가야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11) 이런 점에서 497년 남제에 대한 조공이나 481년의 가라구원군 파견을 대가야의 독자적인 대외관계(李文基, 위의 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법흥왕이 재위 9년(522)에는 가야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고 11년에는 남경에 출진하여 가야왕과 회합을 갖는다. 그리고 법흥왕 19년에는 드디어 남부가야의 대표적인 존재였던 금관가야를 통합하였다.<sup>1)</sup> 그런데 《일본서기》 흠명기 2년(541) 4월조 등에는 탁순이나 탁기탄 등의 멸망 사실이 언제나 금관가야의 멸망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도 금관가야가 신라에 통합된 532년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에 통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신라의 탁순·탁기탄·금관가야 등에 대한 통합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흠명기 2년 4월조에 보이는 백제 성왕의 이야기에 의하면 탁기탄은 신라와의 국경선에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침공을 받아서, 남가야는 땅이 협소하여 줄지에 방비할 수 없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그리고 탁순은 상하가 분열되어 있고 군주가 신라에 내용해서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흠명기 5년 3월조에는 성왕의 말로써 탁기탄도 그 한기가 가야국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신라에 내용하여 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남가야도 신라와의 합의에 의해서 통합된 것으로 되어 있다.<sup>2)</sup> 결국 신라의 탁순·탁기탄·금관가야 등에 대한 통합은 전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신라는 가야지역에 대해서는 백제와 각축을 벌이고 있었지만 북방에서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대해서 백제와의 공수동맹으로 대항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야지역에서 백제와 직접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북방의 대고구려전에 파탄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신라로서는 백제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가야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가 금관가야 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가야의 지배층이 신라에 내용하거나 신라와의 통합에 적극 응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백제의 가야지역에 대한 군의 상주나 직접 지배의 시도는 이미 백제의 세력하에 있던 지역은 별개로 치더라도 여타

1)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9년·11년·19년.

2)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9년.

지역으로서는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탁순과 탁기탄의 지배층이 지금까지의 백제 영향력에서 벗어나 친백제파와 친신라파로 분열되고 남가야가 신라에 접근한 데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비교적 백제의 영향이 덜 미치고 신라가 통합한 금관가야 등과 이웃하고 있던 안라가야 등은 금관가야 등의 대신라 접근과 그들에 대한 신라의 통합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 경우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백제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로서는 가야 지역에 대한 백제의 세력강화나 531년 안라가야에 대한 군의 진주까지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남서부의 안라가야이다.

## 2) 백제의 직접지배 시도

5세기 후반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가야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즈음 성주의 반파가 백제가 장악하고 있던 己汶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백제와 반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백제가 기문을 다시 장악하게 된다.<sup>3)</sup> 이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가야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북부가야 지역의 반파 등이 독자적인 색채를 보인 데 대해서 백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음을 보여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백제로서는 대고구려전에 있어서 후방기지에 해당되는 가야지역의 반백제적인 움직임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문을 둘러싸고 반파와 백제가 분쟁을 계속하고 있을 즈음에 신라도 본격적으로 가야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532년에는 금관가야 등의 통합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백제로서는 그 세력하에 있던 가야에 대한 신라의 진출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가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서기》흠명기 4년(543)조와 5년조 등에는 백제가 가야에 배치한 군령

3) 《日本書紀》권 17, 繼體紀 7년 6월·11월.

· 성주와 일제 백제관료(일본의 성과 씨를 가진 백제의 관료를 지칭함)들의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안라가야 등과 백제가 논란을 벌이는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郡令」이나 「城主」는 그 명칭으로 보아서 지방장관의 명칭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늦어도 6세기 중반까지는 백제가 그 지방장관을 가야지역에 배치하여 직접지배를 시도한 셈이 된다.

그런데 백제가 임나지역에 배치한 지방장관으로서 최초로 확인되는 인물이 穗積臣押山(호즈미노오미오시야마)이다. 그에 관한 기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백제가 파견한 가야 下哆唎의 지방장관으로 등장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그가 지방장관으로서 등장하는 529년경에는 백제가 가야지역에 지방장관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백제가 가야지역에 지방장관을 배치한 것은 반파 등의 독자적인 움직임과 신라가 가야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금관가야의 통합에 이르는 5세기 전반에 가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취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백제군의 가야 진주나 지방장관의 배치는 남가야가 멸망하는 532년까지는 고령가야를 중심으로한 북부 가야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와 같은 사실은 《일본서기》흠명기 2년 4월조의 남가야가 의탁할 곳이 없어서 갑자기 멸망했다는 내용이나 지방장관이 배치되었다는 것보다는 군의 주둔이 선행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금관가야가 멸망하기 직전인 531년에야 백제군이 남부의 안라가야지방에 진주하고<sup>5)</sup> 있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한편 《일본서기》흠명기에는 백제가 신라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신라와 가야 사이에 배치한 일본으로부터의 용병인 일제 백제관료들<sup>6)</sup>의 본국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백제와 안라가야 등 가야 제국 사이에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제 백제관료로서 최초로 확인되는 인물도 역시 수직신압산인데 그가 일제 백제관료로서 최초로 확인되는 것이 529

4) 그가 《日本書紀》권 17, 繼體期 6년조와 7년조에도 등장하는데, 23년 3월조에는 백제 下哆唎의 장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5) 《日本書紀》권 17, 繼體紀 25년조의 분주에는 백제군이 531년에 안라가야에 진출하는 모습이 보인다.

6) 일제 백제관료에 대해서는 金鉉球, 앞의 책 참조.

년이다.<sup>7)</sup> 따라서 백제가 일제 백제관료를 가야지역에 배치한 것도 반파의 독자적인 움직임과 6세기 전반 신라의 가야진출에 맞추어서 취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짐작된다.

따라서 백제는 반파의 세력확대에 대항해서 기문 · 다사를 점령하는 한편 일제 백제관료와 군령 · 성주라는 지방장관을 배치하여 직접지배를 시도한 셈이 된다. 그러나 기문 · 다사의 점령이나 군령 · 성주 및 일제 백제관료의 배치가 반파의 기문점령에서 촉발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고구려와 신라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sup>8)</sup>

그런데 일찍부터 가야 제국이 백제의 세력권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백제의 직접지배체제의 구축은 가야 제국의 협력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신라의 금관가야 등에 대한 통합에 불안을 느낀 이웃의 안라가야 등으로서는 신라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백제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백제의 가야지역에 대한 직접지배체제의 구축과 안라가야에 대한 군의 진주가 가능했던 원인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런데 신라와의 직접 충돌만은 피해야 할 입장에 있던 백제로서는 신라의 세력확대를 저지하면서 가야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백제의 이런 태도는 가야지역에 대한 백제의 세력확대에 불과한 것으로 백제의 세력하에 있던 가야나 신라에 통합된 금관가야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제외한 가야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라의 가야 통합에 못지 않는 위협인 것이다. 따라서 안라가야 등 가야 제국과 백제와의 사이에는 불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된 것이 안라가야로 군령 · 성주 등의 지방장관과 일제 백제관료의 본국송환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라가야가 가야 제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7) 《日本書紀》권 17, 繼體紀 23년 3월.

8) 그와 같은 사실은 《日本書紀》권 19, 欽明紀 5년(544) 11월조에 보이는 것처럼 가야의 군령 · 성주 등의 철수요구에 대해서 백제가 그들의 배치는 신라 · 고구려세력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함을 설득하여 가야 제국을 납득시키고 있었던 점으로도 입증된다.

## 3) 가야의 멸망

《일본서기》의 관계 기사에 의하면 흠명 2년(541)경부터 안라가야 등이 백제에 대하여 군령·성주 등 백제가 가야지역에 배치한 지방장관과 일계 백제관료들의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하여 백제와 가야 제국간의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런데 안라가야 등이 백제가 가야지역에 배치한 일계 백제관료나 군령·성주 등의 본국송환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제가 배치한 일계 백제관료나 군령·성주 등 지방장관들이 남가야 등의 부흥에는 힘쓰지 않고 오히려 신라와의 친선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sup>9)</sup>

그런데 5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고구려가 평양으로 서울을 옮기고 본격적으로 남하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제동맹을 맺게 된다.<sup>10)</sup> 이런 때에 신라가 가야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백제도 가야지역에 대한 직접지배를 시도함으로써 양국간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주된 공격의 대상은 신라보다는 백제였으므로 백제로서는 가능한 한 대고구려관계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백제가 가야지역에 파견한 일계 백제관료나 지방장관들도 신라가 통합한 남부가야 등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상 신라의 세력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가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신라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다. 백제가 지방장관을 배치하여 가야에 대한 직접지배를 시도하는 한편 가야와 신라 사이에 백제군이 아니고 제3국의 군대인 일본으로부터의 용병을 배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백제가 금관가야 등의 회복보다는 신라와의 현상유지에만 힘을 쓰는 것은 가야 제국의 입장에서는 가야지역에 대한 백

9) 《日本書紀》권 19, 欽明紀 5년 3월.

10)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 變化에 대한 一考察〉(《東方學志》28, 1981).

제의 세력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541년경부터 가야가 일제 백제관료와 백제가 배치한 지방장관의 철수를 요구한 데 대해서 백제측이 대안으로서 소위 3책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sup>11)</sup> 그 내용은 고구려와 신라의 가야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령 · 성주 등의 지방장관은 그대로 두고, 吉備臣(기비노오미) · 河內直(카와치노아타히) 등 일제 백제관료는 본국으로 송환시키며, 탁순 등의 부흥을 위해서 안라가야와 신라의 사이에 6성을 쌓은 다음 야마토왜에서 빌린 군대와 백제군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554년의 관산성전투에서 가야가 백제와 함께 신라와 싸운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541년경부터 가야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의 시도 문제를 둘러싸고 가야 제국과 백제 사이에 알력이 있기는 했지만 소위 3책을 바탕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위협하에 놓인 가야 제국으로서는 백제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가야 제국은 백제와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554년 관산성전투에서 가야와 백제의 연합군이 신라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562년 대가야의 멸망에 즈음해서 백제가 가야지역에 출병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12)</sup> 그리고 당시 고령의 대가야 멸망은 대가야가 신라에 반하였으므로 신라에게 토벌당한 결과인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562년 고령가야의 멸망기사는 544년 관산성 싸움 후에 실질적으로 신라의 세력하에 들어간 대가야가 562년 백제와 더불어 가야의 부흥을 꾀하다가 실패한 사실을 보여 주는 내용이라 여겨진다.

결국 가야 제국은 554년 관산성전투의 패배로 실질적으로는 신라의 세력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백제와 가야 제국과의 369년 이래의 관계도 554년의 단계에서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金鉉球〉

11) 《日本書紀》권 19, 欽明紀 5년 11월.

12) 《日本書紀》권 19, 欽明紀 23년(562)조에 의하면 가야의 멸망에 즈음해서 야마토왜가 출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출병한 것은 야마토왜가 아니고 백제였다(金鉉球, 앞의 책, 144~146쪽).